



- 일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는 돗토리현 내에 25개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마이 今井 서점의 본점. 출판·서점 관계자들의 연수를 위한 '책의 학교' 운영으로 평판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지방출판이 일본의 출판발전 원동력

글_백원근

지방출판은 한국문화의 세포이다

우리 출판의 21세기 비전을 위한 화두의 하나는 지방출판의 균형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있다. 출판산업의 극심한 서울 편중 현상으로 인해 2002년 말 현재 지방출판은 신고(등록) 출판사의 28퍼센트, 신간 발행종수의 5퍼센트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규모를 반영하는 발행부수는 1퍼센트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과 특색 있는 지방문화의 창달에 힘입어 우리처럼 일극 집중화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출판이 수준 높은 사회문화 발전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 지방출판이지만, 여타 분야보다 더 낙후된 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출판의 현주소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출판·인쇄 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은 8대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지방 출판문화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 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 출판사의 우수 출판물 제작 지원(2004년 1종당 1,000만 원 내외×300종), 지방 서점의 육성을 위한 현대화·정보화 융자지원(향후 4년 간 총 600억 원 규모)이 그 대강이다. 건국 이래 가장 종합적인 출판 발전방안이라는 이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에 출판·서점계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출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돼야 할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명분논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특색 있는 지방문화의 계승과 전통의 재창출 자체가 경제가치의 원천이며, 문화적 종의 다양성이야말로 출판이라는 유기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생태학적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 거주자의 문화복지와 문화·지식욕구를 충족시키는 서점문화의 존재도 불가결하다.

현재 (재)한국출판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책 출판 활동 속에서도 활발했던 지방의 관아, 사찰, 사대부 등의 비주류 출판이 지녔던, 당시와 오늘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 동시 생활권 시대에 무슨 지방출판 르네상스론이냐는 분이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한국출판이나 한국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출판물의 존재감이 부실하다면 우리 문화의 기층세포가 죽어 있다는 말과 같다.

일본 지방출판의 저력

일본은 좋은 싫든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나라이다. 지방출판에 대해 말하자면, 한참 앞을 달리고 있다.

일본 출판사(4,361개) 가운데 지방에 소개한 곳은 955개에 불과하지만, 단행본을 출판하는 곳의 연평균 발행종수는 6.6종에 이른다. 서점(서점상업조합 가맹 8,173개)의 경우는 지방 소재가 7,231개로 88퍼센트를 차지한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전국 체인점 또는 광역 체인점을 운영하는 곳들의 활동이 눈부시다는 점이다. 지방 본사 체인서점의 2001년도 매출 및 점포수를 보면 분쿄도(4,783억 원, 224점포), 유린도(4,749억 원, 32점포), 북뵩(2,437억 원, 104점포), 쿠도(2,379억 원, 23점포) 등부터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닛신도(232억 원, 13점포)에 이르기까지 체인점 수나 매출액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도쿄의 쿠도서점 역시 오사카 인근의 효고兵庫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지방출판의 저력은 무엇인가. 첫째는 지방 문화의 건재함에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지역별 축제(마츠리)

나 지방술地酒부터 지역 박물관이나 지방 순회 전국문화제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삶과 함께 하는 향토문화의 탄탄한 기반이 있다. 출판도 그 지역만의 독자성을 살린 향토사와 민속사, 구비문학, 지역경제, 사진집 등의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책에 담아 지역 혼을 불어넣어 왔다. 이런 책들은 지역의 개인독자뿐 아니라 관공서와 학교에 기관독자가 존재해 최소한의 경영기반이 보장된다.

둘째는 전통의 가치를 오늘에 다시 담아내는 온고지신과 재창조의 경제감각이다. 일례로 출판업계 전문지 <신문화> 최신호에 소개된 교토京都 관련서 붐을 들 수 있다.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찾아가는 일본의 고도古都이다. 전통가옥은 살리되 실내 인테리어와 상품 구색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한 식당, 각종 상품점 등이 즐비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책들이 쏟아지고 덩달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경기한파와 국제정세 불안 및 사스로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로 바뀐 배경도 있지만, 단순한 가이드북 이상의 '교토 매뉴얼북'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본래 교토에는 인문서의 학술출판사들이 있었을 뿐, 가이드북 계통은 도쿄 출판사들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현지 사정은 현지인들을 따라갈 수 없는 법. 여행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출판사들이 출현해, 스테레오 타입의 정보가 아닌 생생한 테마별 알짜 정보를 담은 현지 출판인들의 책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맛집, 멋집, 알려지지 않은 볼거리와 문화정보가 교토 현지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볼거리만 소개한 책, 맛집이나 술집만 소개한 책, 고서점을 전문으로 소개한 책 등 테마 구성이 다채로워 독자 입장에서 몇 권의 책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토의 맛있



● 일반독자들의 참여로 매년 대표적인 도서에 주어지는 지방출판문화 공로상의 2002년도 전시물.

는 밥집 100》은 발행 1년 만에 15만 부를 판매했고, 교토에 관한 재미난 잡학 에세이 《교토의 재미》나 《교토의 가격》 《교토 모자이크》 《교토 사람만 알고 있다》 등이 절찬 판매되고 있다.

셋째는 향토출판에 대한 출판인들의 애착과 자부심이다. 대를 잇는 출판사들이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문화의 실체는 책에 있다”는 소명감으로 지역저자와 지역출판사 그리고 지역독자를 잇는 가교 역할의 소중함을 알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방에 묻혀 지내는 알려지지 않은 저자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소개하거나 지방문화와 사회현상을 조명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출판사들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경쟁력도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입으로 전해지던 지방문화의 구비전통은 단절되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출판물은 뿌리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어른이자 이웃이다. 그 가치를 아는 출판인들의 자부심은 일본 문화를 지켜내고 재창조하는 지방문화의 실체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한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사, 서점 및 도서관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제정한 ‘지방출판문화 공로상’의 소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상은 1987년에 돗토리鳥取현에서 개최된 일본출판문화전을 계기로, 우수 지방출판물을 모아 매년 개최하는 ‘북 인 돗토리, 전국 도서전’을 기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소출판 유통센터의 활약

일본 출판은 또한, 닛판이라는 양대 도매상에 의해 전체 출판물의 80퍼센트가 유통된다. 일반 서점들은 또한 계열, 닛판 계열로 분리되어 거래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상당한 실적과 매출이 있어

야 거래계좌를 가질 수 있기에, 지방이나 도쿄의 소규모 출판사들은 전국적인 배본과 영업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방·소출판地方小出版 유통센터이다.

현재 1,000여 출판사와 거래하며 양대 도매상을 필두로 도매상들에게 배본을 중개대행한다. 유통창고 실평수 100평에 2002년 연간 매출 165억 원(전년 대비 2.87퍼센트 증가)에 불과하지만, 책의 거리인 간다 진보초에 직영서점을 운영하며 거래 출판사의 출판정보를 각종 매체에 제공하는 등 지방 출판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총목록과 월간 소식지도 꾸준히 발행한다. 유통중인 6만 종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어로 만든 책이나 영화잡지를 일본에서 유통시킬 경우에도 이곳을 거쳐 전국 서점으로 유통되고 있다. 2002년에 입고된 신간은 3,305종으로(전년 대비 14.7퍼센트 증가) 문학·어학이 873종으로 가장 많고 사회 617종, 역사·지리 516종, 예술 357종 등 인문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은 도쿄 이외의 지방출판이 활발해졌는데, 최근에는 불황 속에서 건투하며 다시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다. 지방의 출판, 유통, 서점이 살아야 출판산업과 책문화의 미래가 담보된다. 우리는 정부정책 이전에 출판인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출판시장의 불균형 타개와 새 텃밭의 개간을 위해서는 출판사들의 지방서점 개설운동(한 출판사 한 서점 세우기 운동)이라도 필요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한**